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최미경(Mi-Kyung Choi)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levels of adolescents. A sample of 319 1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 levels of school related adjustments, anxiety and career maturit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s well as multi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Career maturity, as well as anxiety was founded to be a predictor to the school related adjustments levels of adolescents;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s were found between career maturity and anxiety in terms of school related adjustm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possible interventions in relation to adolescents' anxiety levels and to improve the school related adjustments levels of adolescents.

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related adjustments),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불안(anxiety).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을 학교에서 지내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졸업

*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을 받았음.

¹⁾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Choi,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E-mail : dmkchoi@duksung.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실제로, 청소년기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저해했으며, 정신질환, 자살, 가출, 등교거부, 학교 중도탈락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Lee, 2001), 사회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수용하며 교사,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며, 교과 및 교내활동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Youn & Kim, 2005). 학교적응은 대개 진도태도성숙도나 성취동기(Lee, 2007), 학업성취도, 학교 스트레스(Park, 2006), 학교에서의 대인관계(Cha, 2000)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실제로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으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가 높았으며(Choi, 2008),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났다(Bae, 2003). 또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았고(Choi, 2001; Lee, 2002), 또래관계에서 안정과 신뢰감을 느끼고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원만하면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졌다(Shim, 2003). 이와 같이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태도, 학교 스트레스 및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이 주로 대인관계나 개인내적 특성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나, 청소년기 학교생활 부적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그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 및 가정의 환경적 요인, 청소년 개인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발달과 탐색

이 이루어지는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Jang, 2008; Jong, 2011; Kim, 2008; Kim, 2009)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즉, 인간의 진로선택 및 탐색의 발달과정은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같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변화하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발달과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e, 2003; Super, 198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시기에 학업성취보다 진로적성에 대한 탐색이 보다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시범지역부터 먼저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Chosun Ilbo, 4. 25). 그만큼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를 이루려는 꿈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높았다(Kim, 2007). 이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과 일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우수한 정도를 나타낸 청소년은 학교적응이 우수하고(Jang, 2009), 학교의 규칙, 친구, 교사, 그리고 수업 등의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Choi, 2008)을 나타낸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최근에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적응을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들 가운데 하나로, 급격한 신체적 성장 및 심리적 불안정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

이 깊은 불안(anxiety)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불안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이 장차 닥칠 것을 예측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느끼는 기분상태(Barlow, 1988)를 뜻한다. 불안은 대개 긴장감, 염려, 그리고 과도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인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으며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비교적 영속적인 성격적 경향성인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분된다(Spielberger, 1972).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정서적인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Schonert-Reichl & Muller, 1996),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성적 위주의 경쟁체제로 인하여, 오히려 불안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스트레스의 장소로(Park, 2000)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불안은 학교적응이 힘든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현상이다(Cohen, 2002). 즉, 불안은 학교에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제한시켰으며, 과제 완수를 방해하였고(Oh, 1992) 나아가 학업성취도를 낮추었다(Elkskin & Elkskin, 2004). 또한 불안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고, 사회적 기술의 부적절함과 더불어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냈다(Strauss *et al.*, 1989). 이는 발달적인 변화가 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압력과 함께 불안감을 갖게 되면, 이러한 불안은 학업성취도 등과 같은 학교적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Elkskin & Elkskin, 2004)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인 불안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교육, 상담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

의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국내의 연구는 그 수가 드물 뿐만 아니라, 불안이 학교적응의 관련 변인으로 미약하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한편, 학교적응과 같이 환경에 대한 대처 및 적응능력은 개인이 지닌 심리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erry, 2003). 즉, 청소년 자신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학교에서의 적응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환경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그 개선책의 하나로 불안의 감소를 포함시키며, 불안은 환경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Solmone, 1982). Cooper(1986)는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불안 때문에 진로 등의 결정을 잘하지 못하게 되며, 높은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진로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며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Hong & An, 2009). 또한,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면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불안감이 큰 청소년은 진로발달에 필요한 과제를 회피하여(Hawkins, Bradley & White, 1997) 학교적응을 더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이 같은 정도의 진로성숙도를 보인다고해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즉, 상황을 얼마나 안정되게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이 비슷한 정도로 불안을 나타낸다고 하여도 진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결정하였느냐 하는 진로성숙도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결정요인으로 진로성숙도와 청소년 개

인의 심리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탐색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은 각각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불안이 일종의 중재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불안이 각각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불안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해 보았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불안은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불안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S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319명의 남녀 청소년(남자 : 154, 여자 : 165)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된 것은 청소년기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 심리·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김으로써 개인 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Achenbach, 1991).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127명(39.8%)과 169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36.1%, 400만원 이상이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과 자영업, 일반 판매 종사자가 각각 89명(27.9%),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112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진로성숙도, 불안, 그리고 학교적응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청소년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질문지는 Crites와 Savickas(1996)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기초로 Lee와 Han(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진로태도성숙 질문지를 Lee(2002)가 재구성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진로확신성 요인은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히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등이, 진로준비성 요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나는 고등학생이지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등이, 진로결정성 요인은 '진로 선택이란 때가 되면 하기

마련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직업을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 등이, 그리고 진로독립성 요인은 ‘나는 진로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겠다.’, ‘나는 누구에게나 각 개인에게 알맞은 직업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의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진로의 확신성 .85, 준비성 .80, 결정성 .80 그리고 독립성 .68이었다.

2) 불안

청소년의 불안 척도는 Spielberger(1983)의 상태불안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Kim(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 ‘나는 긴장되어 있다’, ‘나는 불안하다’ 등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본 분석에 사용된 20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Kim(2000)이 작성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그리고 학교환경적응의 5개 하위 영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학교교사적응 요인

은, ‘나는 학교에서 맡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등이, 학교생활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아껴 쓴다.’ 등이, 학교수업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등이, 학교친구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다.’, ‘학교에서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학교환경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학교교사적응 .90, 학교생활적응 .74, 학교수업적응 .84, 학교친구적응 .77, 그리고 학교환경적응 .87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2011년 6월에 서울시 G구에 위치한 S 고등학교 1학년 상담 전임 교사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상담교사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상담교사가 1학년 각 학급의 진로지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응답을 마친 학생들의 질문지를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25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 98.5%)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319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과 같이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그리고 진로독립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낮았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다. 그 외에, 청소년의 불안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았다. 끝으로, 학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319)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Career maturity (Career confidence)	-									
2. Career maturity (Career readiness)	.38***	-								
3. Career maturity (Career determinacy)	.41***	.51***	-							
4. Career maturity (Career independence)	.34***	.63***	.44***	-						
5. Anxiety	-.26***	-.13*	-.18***	-.14**	-					
6.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teacher)	.21***	.24***	.09***	.20***	-.38***	-				
7.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life)	.21***	.32***	.32***	.39***	-.27***	.48***	-			
8.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class)	.28***	.23***	.19***	.33***	-.29***	.54***	.59***	-		
9.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peer)	.21***	.16**	.08	.18**	-.33***	.47***	.37***	.38***	-	
10.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environment)	.08	.06	-.01	.05	-.31***	.56***	.41***	.39***	.46***	-
M(SD)	2.74 (.59)	3.24 (.50)	3.49 (.50)	3.19 (.46)	2.32 (.47)	2.32 (.61)	2.76 (.49)	2.33 (.58)	2.66 (.48)	2.11 (.52)

* $p < .05$. ** $p < .01$. *** $p < .001$.

교적응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높았다(각각 $\beta = .16, p < .05$; $\beta = .22, p < .05$). 또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확고히 결정되어 있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수록 학교에서 규칙 등 생활전반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았다(각각 $\beta = .16, p < .05$; $\beta = .28, p < .001$). 나아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스스로 결정할수록 학교에서 수업상황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높았다(각각 $\beta = .19, p < .001$; $\beta = .27, p < .001$). 끝으로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클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았다(각각 $\beta = .17, p < .01$). 그러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환경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이 학교적응 가운데 교사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8%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18%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확신성, 진로독립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수업적응에 대한 설명력으로 14%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확신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친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Career maturity as predictors of school related adjustments (N = 319)

Independent variable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teacher)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life)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class)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peer)	
	B	β	B	β	B	β	B	β
	Career maturity (Career confidence)	.16	.16*	.02	.03	.19	.19***	.14
Career maturity (Career readiness)	.22	.18*	.06	.06	-.02	-.02	.06	.06
Career maturity (Career determinacy)	-.12	-.10	.15	.16*	.00	.00	-.07	-.07
Career maturity (Career independence)	.10	.07	.30	.28***	.34	.27***	.11	.11
R^2	.08		.18		.14		.06	
F	7.04****		17.55****		12.45****		4.94****	

* $p < .05$. ** $p < .01$. *** $p < .001$.

구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6%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02~1.45)와 0.1이상(0.69~0.98)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erry & Feldman, 1985).

3.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청소년의 불안감이 클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학교에서 교내의 규칙 등 생활전반에 대처하는 능력, 수업상황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낮았다 (각각 $\beta = -.38, p < .001$; $\beta = -.27, p < .001$; $\beta = -.29, p < .001$; $\beta = -.33, p < .001$; $\beta = -.31, p < .001$). 불안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교사

적응/생활적응/수업적응/친구적응/환경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5%, 7%, 9%, 11%, 10%였다.

4. 학교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불안간의 상호작용

학교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불안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앞선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진로성숙도의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그리고 진로독립성을 1단계로 각각 투입하고, 불안을 2단계로 투입하였으며 진로확신성과 불안 및 진로준비성과 불안, 진로결정성과 불안, 진로독립성과 불안 간 상호작용 변수를 각각 3단계로 투입하였다(Table 4, Table 5).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종속변인인 교사적응 및 수업적응 각각에 대해, 독립변인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불안과의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적응(교사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불안의 위계적 회귀분석
먼저, 교사적응에 대한 진로확신성과 불안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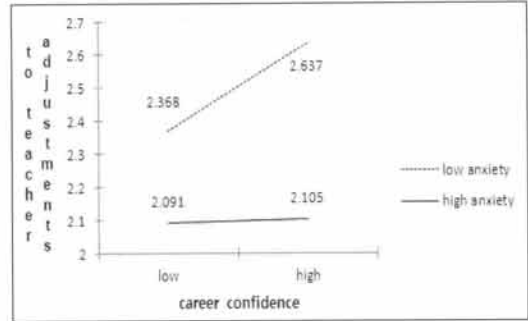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Anxiety as predictors of school related adjustments (N = 319)

Independent variable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teacher)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life)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class)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peer)	
	B	β	B	β	B	β	B	β
	Anxiety	-.49	-.38***	-.28	-.27***	-.36	-.29***	-.34
R^2	.15		.07		.09		.11	
F	53.69***		24.12***		12.45***		38.54***	

*** $p < .001$.

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beta = -0.12, p < .05$)가 나타났다. 즉, 진로확신성을 1단계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이 5%였던 것이 2, 3단계로 진행하면서 15%에서 1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교사적응에 대한 진로확신성과 불안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즉, 청소년 불안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를 뺀 최소값과 1 표준편차를 더한 최대값을 대입하여 불안의 고/저에 따른 두 개의 회귀식을 만들었다. 그 결과, Figure 1과 같이 불안이 높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낮은 교사적응을 나타냈으나, 불안이 낮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이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confidence)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teacher)

낮은 집단은 교사적응이 낮았으나 진로확신성이 높은 집단은 교사적응이 높았다. 이는 다시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career confidence)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adjustments to teacher) (N = 319)

Independent variable	Adjustments to teacher		
	Step 1	Step 2	Step 3
Career maturity (career confidence)(A)	.21***	.12*	.12*
Anxiety(B)		-.35***	-.33***
(A) × (B)			-.12*
F	14.82***	29.72***	21.87***
R ²	.05	.15	.1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career confidence)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adjustments to class) (N = 319)

Independent variable	Adjustments to class		
	Step 1	Step 2	Step 3
Career maturity(career confidence)(A)	.27***	.21***	.21***
Anxiety(B)		-.23***	-.22***
(A) × (B)			-.12*
F	26.43***	23.45***	17.70***
R ²	.08	.13	.15

* $p < .05$. ** $p < .01$. *** $p < .001$.

말하면 같은 수준의 진로확신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불안한 마음이 적고 보다 안정적이라면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진로확신성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불안이 높다면 학교에서 교사와 원만히 지내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적응(수업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불안의 위계적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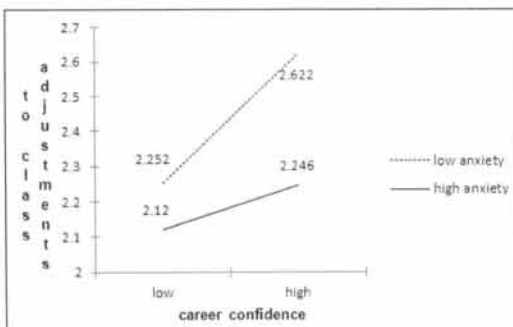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업적응에 대한 진로확신성과 불안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유의한 상호작용효과($\beta = -0.12, p < .05$)가 나타났다. 즉, 진로확신성을 1단계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이 8%였던 것이 2, 3단계로 진행하면서 13%에서 1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업적응에 대한 진로확신성과 불안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도,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ure 2와 같이 불안이 높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낮은 수업적응을 나타냈으나, 불안이 낮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이 낮은 집단은 수업

적응이 낮았으나 진로확신성이 높은 집단은 수업적응이 높았다. 즉, 같은 수준의 진로확신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불안한 마음이 적고 보다 안정적이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진로확신성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불안이 높다면 학교에서 수업의 적응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불안이 각각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그리고 진로독립성 등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교사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높았다. 또한,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확고히 결정되어 있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수록 학교에서 교내의 규칙 등 생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confidence)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class)

활전반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았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확신성, 진로독립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수업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할수록 학교에서 수업상황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높았다. 끝으로, 진로성숙도 가운데 진로확신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친구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클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가운데 환경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의 하위요인들 중 특히,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이 학교적응 및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연구(Kim, 2009) 및 자신이 선택할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과 일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우수한 정도를 나타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우수했으며(Jang, 2009), 학교의 규칙, 친구, 교사, 그리고 수업 등의 학교생활적응을 잘했다는 연구결과(Choi, 2008)와 일치하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를 이루려는 꿈을 지닌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적응력도 높았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도 유사하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와 조화롭게 지내고 규칙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며 관리해 나가는 생활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기에 직업적

역할 탐색과 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Lee, 2003; Super, 1980)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발달을 도울 교육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불안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 모두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어, 청소년의 불안감이 클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학교에서 교내의 규칙 등 생활전반에 대처하는 능력, 수업상황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대처해나가는 능력,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 학교에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제한시켰으며, 과제 완수를 방해하였고(Oh, 1992), 학업성취도를 낮추었다(Elkskin & Elkskin, 2004)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불안은 청소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기술의 부적절함 및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초래하였다는 연구결과(Strauss *et al.*, 1989)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체, 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감이 커지면 학업성취도 등과 같은 학교적응이 약화될 수 있다(Elkskin & Elkskin, 2004).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가 스트레스의 장소로 여겨지는(Park, 2000)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불안을 느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는 변인으로서 개인 내 심리적 특성인 불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위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선 회귀분석에서 유의미

했던 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진로확신성과 불안은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불안이 높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교사적응이 낮았으나, 불안이 낮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이 낮은 집단은 교사적응이 낮았으나 진로확신성이 높은 집단은 교사적응이 높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같은 수준의 진로확신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불안한 마음이 적고 보다 안정적이라면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지만, 불안이 높다면 학교에서 교사와 원만히 지내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확신성과 불안이 상호작용하여 수업적응에 영향을 미쳐, 불안이 높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업적응이 낮았으나, 불안이 낮은 집단은 진로확신성이 낮은 집단은 수업적응이 낮았으나 진로확신성이 높은 집단은 수업적응이 높았다. 즉, 같은 수준의 진로확신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적고 보다 안정적인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불안한 마음이 많을 경우 학교에서 수업의 적응도가 낮아졌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불안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정도의 진로성숙도를 나타내도 청소년의 개인 내 심리적 특성, 즉 환경 안에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긴장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불안에 따라 학교적응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안은 환경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Solmone, 1982) 같은 정도의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면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Kim, 2005)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같은 정도의 진로성숙도를 보인다고해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즉, 상황을 얼마나 안정되며 편안하게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교사와 조화롭게 지내며 수업내용을 이해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등의 학교적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의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그리고 진로독립성과 불안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불안이 진로탐색활동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실패에 대한 높은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진로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며 관련 된 정보에 대해 수집하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는 연구(Mahoney & Arnhoff, 1978) 및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불안 때문에 진로 등의 결정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Cooper, 1986) 학교적응을 힘들게 한다는 연구(Bares *et al.*, 2004)와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불안의 척도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영속적인 성격적 경향성인 특성불안이 아닌 긴장감, 염려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시적인 정서상태인 상태불안만을 측정했기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태 및 특성 불안 모두를 조사하여 불안의 종류에 따른 학교적응도를 탐색, 분석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과 같이 자신의 명확한 꿈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가에 따른 학교 수업 참여나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교적응 여부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미래에 대한 진로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깊은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청소년기에 표출되기 쉬운 심리 특성인 불안을 알고 이를 잘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불안은 발달적 영향도 있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표현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 상담적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후기인 고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른 발달연령의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을 조사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발달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과 관련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의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나, 이외에 가정환경이나 부모-자녀 관계 등의 가족 환경적 특성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척도를 통해 종합적인 영향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적으로 청소년의 미래와 학교적응을 위해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서, 교육 정책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선택 및 탐색과정을 돕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시가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방향 설정 등의 확신이 부족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청소년 자신의 불안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 관련 변인으로 불안의 영향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 가지는 준비도가 낮고, 확신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학교의 부적응적인 측면의 약화에 청소년 개인의 심리특성인 불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의 교육, 상담 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References

- Achenabch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101*, 213-232.
- Bae, J. W. (2002). The effect of school stress and coping style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NY : Guilford Press.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

- toward and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a(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193-217.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
- Cha, U. L. (2000). A study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B. L. (2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 E. (2001). The effect of relationship of parent-child, peer, and teacher to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ess, S., & Thomas, A. (1999). *Goodness of fit : Clinical application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PA : Brunner/mazed.
- Cohen, J. (2002). *Caring classrooms/intelligent schools : The social emotion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Cooper, S. E. (1986).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Crites, J. O., & Savickas, M. L. (1996).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pp. 131-138.
- Crnac, K. A.,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vis, M. H. (1980). A multimediat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ater-Deckard, K. (2005).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evelopment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1-115.
- Dix, T. (1992). Parenting on behalf of the child : Emoathic goals in the regulation of responsive parenting.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2nd ed.)(pp. 319-346).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ksnin, L., & Elksnin, N. (2004). The social-emotional side of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27, 1-14.
- Evans, G. W., Boxhill, L., & Pinkava, M. (2008). Pover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 The Role of Maternal Stress and Social Resources.

-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3), 232-237.
- Eysenck, H. J. (1981). *A model for personality*. Berlin : Springer-Verlag.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271-29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dstein, G. A. (1983). Understanding empathy : Inte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psychology per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06-482.
- Gordon, M. (2003). Roots of empathy : Responsive parenting, caring societies. *Keio Journal of medicine*, 52, 236-243.
- Hawkins, J. G., Bradley, R. W., & White, G. W. (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398-403, VA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ng, H. Y., & An, H.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on high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Youth Research*, 16(7), 149-175.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ang, B. Y. (2009).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Jung, M. S. (2011).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Kim, C. S. (2008). The relations of self efficacy, hope,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s/mother's parenting behavior, social anxiety and shame-pron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5). The effect of their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on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perceived by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1), 109-132.
- Kim, M. (2007). The relations of character type,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L. (2000).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A) and school learning motivation(B) and analysis of the two scales. *Educational Study Writings*, 17, 3-37.
- Kim, Y. N.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s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H. (2007).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nd career indecision on school 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Lee, G. H., & Han, J. C. (1996). The relations of career maturit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10*(1).
- Lee H. Y. (2003). Career maturity and counselling. Hakjisa.
- Lee, J. S. (2002). The effects of parents' marital relations and attachment to parents of adolescents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Lee, M. L. (2001).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S. G. (2002). The influence of mother-daughter facilitative communicat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daughter's satisfaction on mother's working or non-working status on high school girls' maturity of career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tourneau, C. (1981). Empathy and stress :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26*, 383-389.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oon, C. N. (2004). The relation between mother-child goodness-of-fi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Moon, S. W., Shin, S. J., & Yi, C. K. (2000). An approach to school social work services for the high school drop-outs planning return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1*(3), 85-112.
- Oh, K. S. (1992). The definition, diagnosis, and effective education method for learning disability. *Disability Children Laboratory, 1*, 1-4.
- Park, G. W. (2006).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ce perceived school stress, support of teachers and friend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Korea.
- Solmone, P. R. (1982). Difficult case in career counseling :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705-32.
- Sim, S. J. (2003).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 Current Trends, Theory and research. NY : Academic Press, pp. 136-149.
- Spielberger(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rass, C. C., Lease, C. A., Kazdin, A. E., Dulcan, M. K., & Last, C. G. (1989). Multi method assessment of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 Child Psychology*, 18(2), 184-189.
- Sup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Counseling Psychologist*, 1, 19-23.
- Sup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Youn, E. J., & Kim, H.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Life-Style, Mental Heal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s' Welfare*, 7(2), 105-120.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456-490.

2013년 4월 30일 투고, 2013년 8월 2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